

왜 고통을 받는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아마도
이 시대에

가장 대중적이고
민감한 질문에

답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은 여러분의 감정에
호소하고,

여러분의 관심을 끌고,
감성을 끄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그 질문은
'왜 고통을 받는가?'입니다.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전에,
이 정체성(Identity)코스에서

이제까지 배운 것을
기억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것들은 4가지 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고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돌보신다고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다고 배웠습니다.

우리는 매우 쉽고 간단하게,
예수님 그분을 상고하면서 그리고

그가 하신 말씀을 들으며,
그가 행하신 것들을 살펴보면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정체성(Identity)을 알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이 반역한 세상을 사랑하심을 압니다.

반역자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마지막에 있을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위대한 구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돌보심을 압니다.
이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단지 오늘 밤에 배운 것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밖에 이르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슬퍼하며 우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일에 대해 아파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성경 여러 부분에 있지만 오늘 밤에 배운 것만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사로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는 나사로를 죽음으로부터 살리셨습니다.

고통의 문제에 대해 상고하고 직면하기 위해 이제까지
배운 네 가지 중요한 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통의 문제를 직면할 때,
예수님의 정체성(Identity)의 증거는 어디에 있으며,

그분의 사역이 우리를 이끄시는 곳도
어디인지 잊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존재하심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심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심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을 압니다.

그래서, 고통의 문제에
무슨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으시고,
전능하지 않으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은 이미 그분의 정체성(Identity),
그분의 사역을 배우면서 이해했고,

내적인 우리의 고백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 고통 받나요?”

이 질문에 대해 두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고통은 우리에게

생소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언젠가 고통은 멈추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에게 고통은 생소한 것이 아닙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늘 밤에는 누가 도움을 주시겠습니까?

매트씨, 오늘 이해를 돕는데,
자원해 주시겠어요? 괜찮으시죠?

그럼, 우리가 함께
여행을 떠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다시 대양에 있지만,
다른 배를 탔습니다. 굉장히 활기칩니다.

지금까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최고의 선장이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선장의 이름은 매트입니다.
매트가 굉장히 항해를 잘하고 있습니다.

항해 중에, 누군가가,
앞에 앉으신 데이브가

생각하고, 듣기를

선장이 마음속으로는 딴 생각을 품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배 안의 사람들을 모두 불러,
회의를 하였습니다.

토론을 한 결과,
우리는 선장인, 매트가

친절하지도, 배려를 하지도 않는 사람이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있지 않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원가 해야 할 시간입니다.

데이브가 조직해서,
덩치 좋은 남자들 몇 명과

매트를 잡아 묶고,
배 밖으로 던졌습니다.

우리는 모두 환호성을 쳤죠.
나쁜 선장을 몰아냈습니다.

이제는 신경 쓰지 않고,
배 안에서 잘 지내면 됩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누군가가 물어봅니다.

“여기서, 배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모두들 경악을 합니다!

배를 운전하는 것은 선장의 역할입니다.
선장이 필요한데, 그는 어디에 있죠?

선장이 없습니다. 어떻게 되었죠?
누구의 책임인가요?

만약 우리가 배에 있고,
선장을 배 밖으로 내 던졌다면,

우리의 삶에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결과가 있게 마련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세상에 살면서
반역자처럼 산다면 우리는 그 결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대해
성경은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해

고통은 늘 있기 마련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서로에게 또한 이 세상과 연관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때때로 이것은 분명한 진리라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우리의 잘못된 어떤 특정한 삶의 방식이

우리를 특정한 고통으로 이끌며,
어떤 때는 우리의 행동으로 인해

고통의 여정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다른 누군가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
고통을 받게 됩니다.

어떤 때는 우리 세대가 아니라,

그 전 세대의 결과로 고통을 받게 됩니다.

또, 어떤 때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영향을 주고,
어떠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와 우리에게
이 지구가 서로 연관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은,
수반되는 기정사실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 때문에

초래되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올바르게 직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결단코 75세까지

이 세상에서 고통없이 살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렇게 약속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몹시 사랑하시고 관대하시지만,

우리는 고통과 반역의 영향아래 있는 세상 속에서
아직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에 대한
올바른 기대를 해야 합니다.

이는 세상을 다 통달한 듯 달변가가 되거나
어려운 일이 와도 울지 말아야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 밖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서 계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울 수 있고 울어도 괜찮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삶에 대한
올바른 기대를 가져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는

고통과 아픔이 세상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할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고통이 끝나는 날이 올 것 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삶을 드리지 않은 이들에게는

이러한 고통의 끝이 없다는 사실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영원한 고통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때
예수님을 따르는 대가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한
그 대가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서는 영원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즉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고통이 있고,

그를 따르는 자에게는
그 고통의 끝이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상상이 되세요?

마지막 작별인사를 하지 않아도,
장례식도 없는

눈물도 흘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날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든 고통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이 세상에
보내시고, 이 세상은 바뀌고, 새롭게 되고,

살기에 아름답고 훌륭한 곳으로
바뀔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께서 생각하시기에,
왜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고통을 멈추시지 않으시지?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서 지금 아들을 보내셔서,
모든 고통을 멈추시지 않으신다고 생각하세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은 아나요?
저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굉장히 많은 계획과 목적을
가지시기에, 저의 작은 두뇌로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복잡한 계획과 목적을 모두

우리에게 알려주시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당장
이 세상이 끝이 나지 않은 것이 기쁘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세상을
끝내시길 원하나요?

질문의 핵심은 지금 당장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 날을 연기하셨습니다.
세상의 끝은 오지만,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그 날을 준비하고

그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모든 고통이 끝날

그 날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지금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와,
그를 당신의 주인으로 삼으면,

예수님께서 장차 올 마지막 심판으로부터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실 것 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올바른 기대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고통 받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 없이 이 세상에 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좋으시고, 전능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신다고
그를 신뢰하면서 살아갑니다.

도움이 될 만한 예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만약 하늘의 통제실이 없다면,
참 두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만약 하늘의 통제실이 있고,
여러분이 모든 일들과 계획도 다 볼 수 있다고 생각해 보죠.

그런데 통제실에 아무도 없다면,
이는 또한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세상에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계획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상세하게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의 계획을 이루심을
신뢰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에,

악도 그의 선하신 계획과 목적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해 보세요.
사악한 사람들이 불의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와 같은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전능하시기에, 악도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준비하며,
예수님을 따르며, 살면서,

모든 고통이 끝날 그날을 고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날에 더 이상 마지막 작별인사도,
장례식도 없지만,

육체적인 새 우주에서,
새 몸과 영원히

하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과

함께 영원히 살 것 입니다.

각 조로 돌아가,
함께 생각해 보고

토론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세요.

Identity – Who is God? Who are we?

© Lee McMunn, 2011

All rights reserved. Except as may be permitted by the Copyright Act,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without prior permission from the publisher.

Published by 10Publishing, a division of 10ofThose Limited.

All Korean scripture quotations are taken from the New Korean Revised Version. © Korean Bible Society.

10Publishing, a division of 10ofthose.com

Unit 19 Common Bank Industrial Estate, Ackhurst Road, Chorley, PR7 1NH, England.

Email: info@10ofthose.com

Website: www.10ofthose.com